

#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선 숙\*

동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 9차(2014년), 12차(2017년), 15차(2020년)의 패널자료이며,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44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론으로 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또 필수설비나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자가 소유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비부담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셋째,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넷째, 확률효과 검증에서는 주거 특성 요인의 필수설비와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장애노인, 주거특성,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 혼합모형

---

\* 주저자: 박선숙/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Tel: 051-629-2124/E-mail: pss4498@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삶의 질이라 할 수 있다. 전 생애 중 개인의 삶의 질이 급락하는 시기는 건강이 나빠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노년기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신체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회활동도 제한적이기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이런 고령화 현실과 더불어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면 자존감이 하락하여 자신에 대한 비하 등 지속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자살 생각으로도 빠질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장애 노인의 25.7%가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22%가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 노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4). 또한 실제 장애인 중 노인의 장애인 비율이 과반 정도로 나타나(김성희 외, 2020) 장애 노인의 삶의 질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송진영·김형모, 2014; 김성희, 2016)과 건강 문제(허원구, 2017; 박선숙, 2021)라 할 수 있다. 경제력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노년기의 경제력과 이에 기반을 둔 삶의 만족도는 가처분 소득의 개념으로서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생활공간의 역할과 더불어 자산으로서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가처분 소득보다는 주거수준이 경제력과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월세나 전세보다 자가일수록, 비아파트보다 아파트, 큰 '평수'일수록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박선숙, 2021).

또한 주거환경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저소득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은 주거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기에(임세희, 2019) 장애 노인의 경우 주거환경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건강 상태도 경제 수준과 마찬가지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복합적인 만성질환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특성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수준보다 개인의 평생 경제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측정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장애 노인은 일반노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차별 경험을 더 많이 겪고 있다(이보영·최효진·한창근, 2019). 경제력과 건강 수준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지만 한국사회의 경제력과 사회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등 비경제적 요인 역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주경희, 2011; 이보영·최효진·한창근, 2019). 장애 노인에 대한 차별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우울 및 자살 생각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야기하고,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등 대외 활동을 위축시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수, 2011, 문영임, 2020, 김진웅, 2022).

장애 노인은 비장애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집단임에도 장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경아 외(2000)는 그 이유로 국가나 사회가 노인 따로, 장애 따로 2개의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상이한 정책을 시행하여 그 결과 장애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

나 장애인복지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장애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개발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 노인은 중장년 시절의 취업차별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과 노화 및 장애라는 이중의 건강 문제, 이동의 불편과 사회활동의 제한에 따른 고독 및 역할상실, 더불어 가족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 및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비장애 노인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탁순자·신은경, 2013)으로, 장애 노인의 장애와 노화로 인한 사회적 취약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여건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사회 또는 생태계가 보유하게 되는 조건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영향 수준이 달라진다는 관점이다. 취약성-스트레스 모델(Vulnerability-stress Model)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와 노화라는 개인의 취약성에 주거환경과 차별 경험이라는 사회·환경적 취약성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해결할 사회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한국복지패널(KOWEPS) 9년차, 12년차, 15년차를 포함한 패널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종단적 패널자료는 특정 연도에만 해당하는 외부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특성과 차별,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장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례 수가 연구대상 인원수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추정과 가설 검증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혼합모형은 패널자료와 같이 서로 간 자기 상관성이 높은 반복측정 자료에 적합한 분석 틀이며 개인 특성 차이에 따른 변동을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처리할 수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격, 결혼, 이혼, 별거 여부, 자녀 유무, 자녀의 효심이나 주변과의 인간관계 등 측정이 쉽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이 장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확률변동으로 처리하여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경제력과 건강의 악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 차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에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애 노인의 물리적 특성인 주거 특성과 사회적 특성인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장기적이고 정확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 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장애 노인과 삶의 만족도

장애인은 일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단순히 정의될 수 있으나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인의 여건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경험하는 삶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판단이므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Ryff, 1989). 삶의 만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일상생활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사회적·정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Neugarten et al., 1961). 장애 노인의 경우 낮은 삶의 만족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심한 우울감을 유발하고(허준수 외, 2002), 더 나아가 자살 생각(오창석, 2012) 등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를 수가 있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Jensen et al.(2008)은 구강건강, Fernández et al.(2015)는 거주관계, 박용순(2016)은 노후준비, 노승현(2017)과 정문진 외(2017)는 장애노인의 건강과 경제수준, 김자영(2019)은 빈곤, 최성현과 허준수(2019)는 경제활동 참여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빈곤과 건강을 꼽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정병두(2018)의 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상태와 SES(사회경제적 지위) 등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여가활동과 차별 경험 정도 등 사회적 요인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최근에는 빈곤 등 경제적 요인과 노화 등 건강요인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창화, 2018), 사회적 네트워크(Tomini et al., 2016). 그리고 사회참여(주경희, 2011; 이준상, 2012; 박경순 외, 2015; 김세봄, 2018; 신유리 외, 2020; Borhaninejad et al., 2017; Baeriswyl et al., 2021)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최근 여러 편 진행되고 있다. 이지은(2021)은 주거 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바 있고, 김성희(2016)는 장애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 변인 중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가구소득, 주택 소유 여부, 수급자 여부, 공적연금 가입 여부, 사회적 차별 정도,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 장애 정도,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도움 여부, 혼자 외출 가능 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성희, 2016). 또한 최영광(2014)은 장애 노인의 장애 유형과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건강요인과 경제요인 및 사회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건강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장애 유형에 따른 남녀 간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 2)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삶의 만족도

주거는 한 개인의 생애를 반영하는 특별한 공간인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녕을 보장받는 공간이다(문선진, 2014; 석희정, 2014). 또한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생활공간을 넘어 건강, 안전,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총체적 의미를

지닌 사회생활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주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거 특성 변인으로 주택의 물리적인 질, 주택 간 과밀한 정도, 주거비부담, 자택 소유, 주거 내 이동성, 공공주택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Leventhal & Newman, 2010). 그 외 주거 특성 변인으로 주거나 점유안정 변인을 포함한 연구도 있다(김동배 외; 2012, 최은희 외; 2018; 박은주·권혁수, 2020).

이명신과 이훈구(1997)는 자가 여부에 따라, 윤희수(2010)는 거주기간, 침실 공동사용,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임광빈과 강동훈(2018)은 주거가격과 주거면적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주지역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적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복지패널(KOWEPS)조사에서는 주거특성 관련 측정문항으로 최저주거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은 ‘상하수도 단독시설’, ‘부엌단독 사용과 입식여부’, ‘목욕시설 단독사용과 온수시설 여부’, ‘화장실 단독사용과 수세식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박선숙, 2023). 구조·성능·환경설비기준은 ‘구조물 재질의 양호함과 주택의 내구성 견고함’, ‘적절한 난방설비·채광·방음·환기 갖추’, ‘진동·악취·소음 및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생활안전’, ‘절벽붕괴·홍수·해일·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등을 측정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부담을 조사하고 있다(박선숙,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 특성을 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인의 주거상황은 청장년층보다 삶의 질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은퇴 후 사회관계가 매우 축소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자신의

주거지나 그 주변인 지역 커뮤니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력 약화와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특수한 형태의 시설 거주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 특성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숙영(2006)은 스웨덴의 노인보호주택 5가지 유형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연구하였고, 김정수(2007)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정도를 비교하였다. 조원희와 한창근(2019)은 자택 소유 초기값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택 소유 변화율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종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들의 주택 소유에 변화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박은주와 권현수(2020)는 최저주거기준이 악화할수록, 또 주거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특히 농촌지역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요인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불안정성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주거지 근처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비장애인의 주거환경보다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환경은 비장애인에 비해 점유 형태, 위치, 기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윤여진, 2004; 김수갑·여경수, 2005; 서종균, 2009; 이선우, 2010).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공급자 중심 또는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한국 주택의 배분 정책 또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주거복지정책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성규, 2003; 진미운, 2013). 또한 장애노인의 주거 환경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체장애인의 주거 빈곤에 관한 연구(김진웅, 2016)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은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었으나 주거비 과부담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남지현(2022)은 지체장애인 대상 연구에서 주거빈곤이 높아질수록 우울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외출을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장애 노인의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

차별은 성, 연령, 인종 자연적인 범주와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학력, 직업 등 사회적 범주에 근거를 두어 구별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행위(이지수, 2011)로 차별을 통해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를 말한다. 차별(discrimination)은 고정관념(stereotype), 편견(prejudice), 낙인(stigma) 등의 개념과 상호보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한 개인 또는 집단을 다수 집단과 상이하게 취급함으로써 인해 심리적 및 사회적 불이익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주류집단이 비주류 집단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또는 다수(majority) 집단이 소수(minority) 집단에게 도덕적 지각없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송진형·김형모, 2014; 문영임, 2020).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복지,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합당한 이유 없이 편견으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장애를 떠나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별이라 할 수 있다(오혜경·김정애, 200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적 행위가 금지되고,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교육, 결혼, 고용 등의 인생의 전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소외와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다(전지혜, 201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17.9%가 결혼 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 시에는 30.9%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20).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교육·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이러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김정남, 2003).

장애인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신체적 조건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여건의 부족을 꼽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면도 크다.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에 반해 우울감은 유의하게 증가하는(이현주·강상경, 2009) 등 여러 연구에서 차별 경험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국, 2010; 이지수, 2011; 박현숙·양희택, 2013; 송진영·김형모, 2014; 김은라 외, 2015, 김진웅, 2022).

정승원(2012)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과 구직 및 취업 활동에서의 차별 경험,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일자리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편견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희국, 2009), 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장애 수용을 매개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선주·염동문, 2013). 전용만(2009)은 장애 노인에 대한 차별을 소득보장

차별, 의료보장 차별, 주거 보장 차별, 여가 정서 차별,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차별 등으로 분류하고 고령과 장애로 인하여 노후의 경제활동이 거의 없고, 주 소득원으로 배우자의 막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만성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 노인이라서 이동할 때 불편하고 의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못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전용만, 2009).

장애인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차별 경험이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의 위축을 통해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하고, 우울, 자아존중감 하락 등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기도 한다. 이지수(2011)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고, 모진아(2012)는 장애 차별 경험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또 문영임(2020)은 차별 경험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노인의 경우 송진영과 김형모(2014)의 연구에서도 고령 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진웅(2022)은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 관계에서 장애 정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참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증장애가 중증장애보다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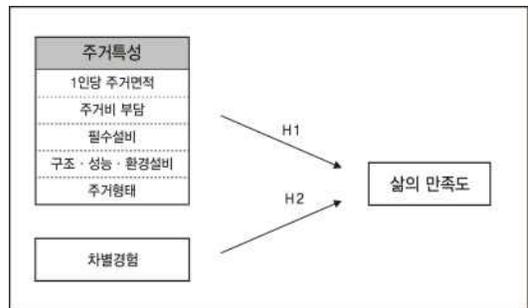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특성인 주거 특성과 사회적 환경 특성인 차별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거 특성으로는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1인당 주거면적과 주거의 경제적 비용인 주거비 부담을 선정하였으며, 주거시설로는 주택의 구조·성능·환경설비 수준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 요인으로 주거 형태를 선정하였다. 차별 경험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장애 노인의 차별 경험을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으로 측정 시차를 선택하였다. 노인은 정년 퇴직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과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이에 따라 사회관계 등 대인관계의 고립화가 심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심각하게 저하된다. 이처럼 나이 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나이 들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 시차를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H1. 주거 특성은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1 1인당 주거면적은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2 주거비부담은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3 필수설비는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4 구조·성능·환경설비는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5 주거 형태는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 차별 경험은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4년(9차), 2017년(12차), 2020년(15차)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규모의 대단위 패널조사로, 제주도 및 농어촌 지역도 포함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조사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다수 표집하여 취약계층의 연구에 유용한 패널로 본 연구의 장애 노인을 위한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9차 측정연도에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44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한 장애 노인 또는 결측값을 가진 장애 노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총 449명 노인 중 남자는 전체의 38.8%, 여자는 61.2%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전체의 24.5%, 70대는 63.4%, 80대는 11.9%, 90대 이상은 0.2%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7.9%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났다으며 무학이 24.7%, 중졸이 15.1%, 고졸이

8.9%, 전문대 이상 학력이 3.3%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41.4%, 무배우자가 58.6%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74	38.8
	여자	275	61.2
연령	60대	110	24.5
	70대	285	63.4
	80대	53	11.9
	90대 이상	1	0.2
학력	무학	111	24.7
	초졸	215	47.9
	중졸	68	15.1
	고졸	40	8.9
	전문대 이상	15	3.3
배우자	무배우자	263	58.6
	유배우자	186	41.4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주거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KOWEPS)조사에서 측정된 주거 특성 관련 문항 중에서 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로 정의하였다.

주거특성 변수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면적은 주거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면적은 단위는 m<sup>2</sup>이다. 주거비부담은 박은주와 권현수(2020) 연구를 토대로 가처분 소득 중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등 주거와 관리에 관련된 비용과 주택대출상환액의 합을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처분소득 중 부(-)의 가처분소득 자료가 하나 있어 이 케이스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박선숙, 2023).

박선숙(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필수설비는 상하수도, 입식화장실, 화장실, 목욕실이 적절한 경우는 1로 하고 부적절한 경우는 0으로 하여 이들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상하수도의 경우 단독사용인 경우 1로 하고, 기타인 경우 0, 부엌은 입식단독사용인 경우 1, 기타인 경우 0으로, 화장실은 수세식 단독사용만 1로 하고 기타는 0으로, 목욕시설은 온수 단독사용만 1로 하고, 기타는 0으로, 난방시설은 기름, 가스 전기보일러와 중앙난방(지역난방)은 1로, 기타는 0으로 하였다.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설비의 경우 박선숙(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질이 양호한 경우,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가 적절한 경우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이 없는 경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우를 1로 하고 기타인 경우 0으로 하여 이들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주거 형태는 비자가=0, 자가=1로 이진변수화 하였다.

차별 경험은 일 년 동안 겪은 차별 경험 횟수를 말하는데 차별의 종류로 결혼 전 차별, 결혼생활 중 차별, 취업 시 차별, 소득 관련 차별, 동료관계 차별, 승진 관련 차별, 운전면허 관련 차별, 보험 이용 시 차별,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정보통신 이용 시 차별, 지역사회 차별 등 11개 차별 범주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 만족, 가족 수입 만족, 주거 환경 만족, 가족관계 만족, 직업 만족,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 여가생활 만족, 전반적 만족 등 8개 하위영역으로 측정된 값이다.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보통(3), 조금 만족(4), 매우 만족(5) 등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Likert형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요인적재값 추정방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값 0.5 이하는 부적절한 문항으로 제거하였다. 분석 결

과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고유값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설명력은 47.825%로 나타났다. 또 Cronbach  $\alpha$  값은 0.794로 0.7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KMO=0.838로 0.8 이상, 구형성 검증을 하는 Bartellett  $\chi^2=3058.047(p<.001)$ 로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 개념	측정문항	요인적재 값	고유값	변동 설명력	Cronbach $\alpha$
삶의 만족도	건강	.588	3.826	47.825	0.794
	가족수입	.607			
	주거환경	.553			
	가족관계	.537			
	직업	.711			
	사회적 친분	.669			
	여가생활	.716			
	전반적 만족	.871			
모형 통계량	KMO=0.838, Bartellett' $\chi^2=3058.047***$				

\*\*\* p<.001

####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혼합모형(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Pearson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 간의 차이를 확률효과로 투입한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혼합모형(Mixed Model)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가 혼재하는 모형이다. 고정효과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모수이거나 요인의 레벨이 반복 재현 가능한 경우(repeatable levels of experimental factors)이고, 이에 반해 확률효과는 모집단의 표본(sample)을 대표하는 모수이다(Davison, 2008). 예를 들어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이 종속변수인 평생교육을 받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혼합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성공적 노화}_{ij} = (\beta_{00} + \beta_{01}) + (\beta_{10} + \beta_{11}) * \text{경제적 능력}_{ij} + e_{ij}$$

이 경우  $\beta_{00}$ 는 전체 노인 집단의 절편,  $\beta_{10}$ 는 전체 노인 집단의 기울기가 되어 고정효과에 해당하는 모수이다. 또 평생교육 기관을 대학교,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한다면  $\beta_{01}$ 과  $\beta_{11}$ 도 고정효과 모수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생교육 기관 표본을 전체 기관에서 무작위(random)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서 노인을 표본 추출한다면  $\beta_{01}$ 과  $\beta_{11}$ 는 정규분포  $N(0, \sigma^2)$ 로 가정하고 정규분포의  $\sigma^2$ 는 확률효과에 해당하는 모수가 된다.

이같이 고정효과의 경우 실험을 다시 할 경우 요인의 값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률효과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을 임의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평생교육기관을 다시 추출해내는 재현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평생교육기관은 2차(level 2) 변수라고 하고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의 성별은 1차(level 1) 변수라고 한다. 본 연구와 같이 패널자료인 경우 연구개체가 2차 변수가 되고 반복측정에 해당하는 개체의 시차별 종속변수는 1차 변수에 해당한다. 기존의 모형과 다른 점은 패널자료이기에

각 개체에 해당하는 측정 시차별 종속변수들은 반복측정 변수이기 때문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첨자를 생략한 수식으로 자세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삶의 만족도} = & (\beta_{00} + \beta_{01}) + (\beta_{10} + \beta_{11}) \\ & \times t + (\beta_{20} + \beta_{21}) \times \text{주거특성} + (\beta_{30} \\ & + \beta_{31}) \times \text{차별경험} + e \end{aligned}$$

여기서  $\beta_{00}, \beta_{10}, \beta_{20}, \beta_{30}$ 는 고정효과 모수이고,  $\beta_{01}, \beta_{11}, \beta_{21}, \beta_{31}$ 는 확률효과를 나타내는데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이때 이 정규분포의 분산이 확률효과 모수가 된다. 또한 주거 특성=(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이고, 시간 t는 시간에 따른 소득과 건강의 악화, 또는 복지의 강화가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측정 차수이다.

### III. 결과

#### 1. 기술통계

<표 3>은 연구변수인 장애 노인들의 주거특성 변수와 차별 경험,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 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일인당 주거면적 평균은 43.73㎡, 주거비부담 비중은 평균 1.82%, 필수설비는 평균 4.82개, 구조·성능·환경설비는 평균 2.93개, 주거형태는 평균 0.36으로 장애 노인의 36%만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3.27로 나타났다.

주거특성 변수 중에서 일인당 주거면적과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변수 간에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거형태는 일인당 주거면

적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주거비부담과 차별경험은 다른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삶의 만족도는 주거특성 변인 중 일인당 주거면적( $r=0.13^{***}$ ), 필수설비( $r=0.16^{***}$ ), 구조·성능·환경설비( $r=0.18^{***}$ ), 주거형태( $r=0.07^{**}$ )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차별경험( $r=-0.09^{***}$ )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① 인당 주거 면적	② 주거 부담	③ 필수 설비	④ 구조· 성능· 환경 설비	⑤ 주거 형태	⑥ 차별 경험	⑦ 삶의 만족 도
①	1						
②	.01	1					
③	.09 <sup>***</sup>	.02	1				
④	.15 <sup>***</sup>	-.03	.26 <sup>***</sup>	1			
⑤	.54 <sup>***</sup>	-.00	-.08	-.01	1		
⑥	-.037	-.01	.01	-.04	-.04	1	
⑦	.13 <sup>***</sup>	-.02	.16 <sup>***</sup>	.18 <sup>***</sup>	.07 <sup>**</sup>	-.09 <sup>***</sup>	1
m±sd	43.73 ± 21.51	1.82± 6.61	4.82± 0.57	2.93± 0.82	0.36± 0.48	0.04± 0.24	3.27± 0.47

\*\* p<.01, \*\*\* p<.001

## 2. 주거특성과 차별경험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혼합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거 특성 중 일인당 주거면적은  $B=0.004(p<.001)$ , 필수설비는  $B=0.073(p<.01)$ , 구조·성능·환경설비는  $B=0.057(p<.001)$ , 주거 형태는  $B=0.130(p<.001)$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으나 주거비부담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즉 일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

록, 필수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자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1, 가설 H1.3, 가설 H1.4, 가설 H1.5는 채택되고 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또 차별 경험에서는  $B=-0.114(p<.05)$ 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었다. 즉 장애 노인의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표 4> 주거특성과 차별경험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회귀 계수 B	SE	t 값	p 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절편	2.515	0.114	22.114	0.000	2.292	2.738
측정차수	0.005	0.005	1.047	0.295	-0.004	0.014
일인당 주거면적	0.004	0.001	4.579	0.000 <sup>***</sup>	0.002	0.005
주거비 부담	-0.002	0.002	-0.877	0.381	-0.005	0.002
필수설비	0.073	0.023	3.164	0.002 <sup>**</sup>	0.028	0.119
구조·성능· 환경설비	0.057	0.016	3.650	0.000 <sup>***</sup>	0.026	0.088
주거형태	0.130	0.036	3.631	0.000 <sup>***</sup>	0.200	0.060
차별경험	-0.114	0.048	-2.357	0.019 <sup>*</sup>	-0.209	-0.019
적합도	-2 restricted log likelihood=1628.954, AIC=1560.954, BIC=1708.134					

\*\* p<.01, \*\*\* p<.001

## 3. 확률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 외의 장애 노인들의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확률효과를 혼합모형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차수에서는

$\sigma^2=0.0002(p<0.05)$ , 필수설비에서는  $\sigma^2=0.0034(p<0.05)$ , 차별 경험에서는  $\sigma^2=0.0014(p<0.01)$ 로 유의한 변동이 나타났으나, y 절편, 일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에서는 유의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확률효과 검증

확률효과	추정값	표준오차	Wald Z	P 값
y 절편	0.0001	0.0002	0.472	0.541
추정차수	0.0002	0.0001	2.494	0.013*
일인당 주거면적	0.0000	0.0000	1.100	0.271
주거비 부담	0.0017	0.0032	0.382	0.655
필수설비	0.0034	0.0017	2.272	0.032*
구조·성능·환경설비	0.0021	0.0015	1.405	0.160
주거형태	0.0003	0.0004	0.891	0.274
차별경험	0.0014	0.0004	2.914	0.007**

\* p<0.05, \*\* p<0.01

#### IV. 논의

본 연구는 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9차(2014년), 12차(2017년), 15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장애 노인 4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 특성 변수는 1인당 주거면적, 주거비부담,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 등 5개 변수와 사회적 특성 변수로 차별 경험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론은 종단 패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 중 1인당 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설비, 주거 형태는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즉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또 필수설비나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주거 형태가 자가 소유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체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김진웅(2016)의 연구와 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지현(202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비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택 소유(조원희·한창근, 2019), 최저주거기준의 악화와 주거불안정성(박은주·권현수, 2020), 그리고 주거가격과 주거면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광빈과 강동훈(201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에서 주거비부담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지체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을 보고한 김진웅(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주거비부담이 높을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김새봄 외(201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 형태, 즉, 월세, 전세, 자가 등에 관계없이 1인당 주거면적이 넓다는 것은 동일한 주거 형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주거면적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경제력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필수설비나 구조·성능·환경설비의 경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 주거 특성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뚜렷한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필수설비나 구조·성능·환경설비가 완비되지 않는 거주지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를 겪는 장애 노인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할 것이다.

주거 형태 역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선숙(2023)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집’은 개인에게 평생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고, 특히 ‘집’이 자산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월세, 전세, 그리고 자가 등 주거 형태, 또 아파트 여부, ‘평수’ 등 주거면적이 한 개인의 부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주거비 부담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주거비 부담의 분모가 가처분소득인데 이 가처분소득이 노인층에서 경제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장년층 직장인은 연봉이나 정규직 여부가 경제력의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지만 은퇴한 노인층에서는 오로지 연금이나 자녀 등 가족의 지원이 중요 소득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농어업 종사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청장년층 때와 큰 변화가 없는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비부담 중 분모인 가처분소득이 노인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도와와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진웅(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둘째, 장애 노인의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즉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서구 시민의식의 고양, 복지정책의 확대와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나 차별행태가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을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 등 장애 차별에 대한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여전히 장애 노인의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약성-스트레스 모델(Vulnerability-stress Model)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이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이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방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 노인의 주거 특성을 개선하고 차별 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 특성 변인 중 유의한 영향이 있는 변인의 p 값이 대부분 0.000 또는 필수설비에서는 0.002로 영향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개인 간의 특성을 확률효과로 고려하였기에 기존의 오차항 변동에서 이 확률효과로 인한 변동분이 줄어들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특성 중 대부분의 요인과 차별 경험이 장애 노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 노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지원, 또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장애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차별 해소책으로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으며, 각 시설별로 노인의 상황에 맞춰 무료입소, 실비입소, 유료입소 등이 있다. 부족한 재원에서 장애 노인의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재가 장애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신 언급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장애 노인을 위한 양질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애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장애인의 언어나 태도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계속 차별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과 함께 나타나는 노화와 장애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비장애인으로 인해 진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자각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 경험 측정 도구에서 특히 소득 관련 차별, 동료관계 차별, 승진 관련 차별, 운전면허 관련 차별, 보험 이용 시 차별,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정보통신 이용 시 차별, 지역사회 차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의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 노인에게 있어서는 이중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안전한 물리적 운전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운전면허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이용 시 불편함 제거, 장애인용 전용 차량 개발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 노인의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 노인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지지체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건강 및 역할상실, 노년생활 설계, 웰다잉 등과 같이 장애 노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

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장애 노인이 정보통신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보통신 활용 방법 교육과 지역사회 차별을 줄이기 위한 비장애인 대상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장애 노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 노인의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주거 특성과 차별 경험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나이 들에 따른 측정 차수를 통제하여 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위한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주거비부담에 대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차별 경험도 주거특성과 마찬가지로 각 차별유형별로 차별 정도, 차별을 겪은 빈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차별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 노인의 장애 정도, 경제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 노인이 기존의 가정에서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으면 주거 특성과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에서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민석 (2015).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21-232.

- 고영준 (2008).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연화, 최열 (2015). 노년층의 가구구성 및 주택접유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능력에 관한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5(4), 977-986.
- 김계하 (2005).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세봄 (2018). 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인문사회21, 9(3), 115-129.
- 김세봄, 진민희, 윤명숙 (2019).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과 우울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3-334.
- 김선주, 염동문 (2013).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3), 5-33.
- 김성희 (2016).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재활복지, 20(3), 17-43.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20).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1), 27-54.
- 김자영 (2019).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9(3), 148-178.
- 김정남 (200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8(3), 595-617.
- 김정수 (2007).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웅 (2016). 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웅 (2022).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및 장애정도 다중집단 분석 적용. 장애인복지연구, 13(2), 182-216.
-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 (2010).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 간 격차. 1995-2005, 농촌계획, 16(1), 49-62.
- 김희국 (2009). 정신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4), 331-340.
- 남지현 (2022). 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외출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형비교를 통한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58, 61-85.
- 노승현 (2017).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장벽요인 및 촉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43(3), 67-79.
- 문영임 (2020).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271- 291.
- 모진아 (2012). 성인기 지체 장애인의 우울증상 정도와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1), 72-81.
-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사회참여가 농촌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2), 200-227.
- 박선숙 (2021). 대응일치분석을 적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유형과 건강관련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 21, 12(2), 229-243.
- 박선숙 (2003). 주거 특성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

-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4(3), 85-102.
- 박은주, 권현수 (2020).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4), 59-81
- 박주영 (2013).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반정호 (2006). 중고령계층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2, 84-93.
- 박향경, 권자영, 최명민 (2015). 지적장애인의 주거 환경변화가 거주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생활시설에서 소규모거주시설로 전환한 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63-289.
- 박현숙, 양희택 (2013).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67-84.
- 송진영, 김형모 (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1), 199-225.
- 신유리, 김정석, 김경미 (2016).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장애와 노령의 접점에서 살펴본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4), 143-167.
- 신유리, 김정석, 문경주 (2020).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701-716.
- 양희택, 서대석 (2011).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고용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247-277.
- 윤혜수 (2010). 노인의 주거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창석 (2012).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질이 우울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로 산업학회지, 6(2), 179-191.
- 오혜경, 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 이명신, 이훈구 (1997).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97-105.
- 이선화 (2015). 노인의 주거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영 (2006). 스웨덴 노인보호주택을 대상으로 한 노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주거환경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19-27.
- 이보영, 최효진, 한창근 (2019).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시각장애연구, 35(4), 49-73.
- 이영미, 강지영 (2022). 장애인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2, 111-130.
- 이준상 (2012). 시각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장애연구, 28(2), 211-228.
- 이중섭 (2009). 빈곤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이지은 (2022). 주거빈곤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와 장애유무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2(3), 455-478.
- 이창화 (2018). 사회적 자본과 노인 삶의 만족도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6), 287-292.
-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 조사를 이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 임광빈, 강동훈 (2018).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문지, 18(4), 467-479.
- 임세희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 임지호 (2017). 시각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시각장애연구*, 22(4), 47-66.
- 전용만 (2009). 고령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연구-지체 장애인으로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진 (2017).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두 (2018).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중단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 조민혁, 박형준 (2017).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2017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1-16.
-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31-264.
- 조원희, 한창근 (2019). 자택소유 및 자택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기값 및 변화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4), 91-123.
- 최성현, 허준수 (2019).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69-95.
- 최영광 (2014).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장애유형에 따른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3, 47-68.
- 최은희, 권치홍, 임덕영, 이슬해 (2018).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한국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탁순자, 신은경 (2013). WHODAS-II를 활용한 장애인 건강상태 영향요인 분석, *재활복지* 17(3), 83-117.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 허원구 (2017).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케적과 건강특성요인. *사회복지정책*, 44(2), 297-318.
- 허준수,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3, 7-22.
- Baeriswyl, M., & Oris, M. (2021).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diversity of practices and social inequality in Switzerland. *Ageing & Society*, 1-25.
- Borhaninejad, V. R., Nabvi, S. H., Lotfalinezhad, E., Amini, F., & Mansouri, T. (2017).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North Khoras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8(4), 701-711.
- Davison. A. C. (2008). *Statistical mod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jkers, M. P. (2010). Issu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articipation: An overview.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1(9), S5-S16.
- Fernández, G. F. M., Pérez, F. R., & Abuín, J. M. R. (2003). Compone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8(1), 25-49.
- Fiorillo, D., & Sabatini, F. (2011). Quality and

- quantity: The role of social interactions in self-reported individu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73(11), 1644-1652.
- Jensen, P. M., Saunders, R. L., Thierer, T., & Friedman, B.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oral health - related quality of life in community dwelli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6(4), 711-717.
- Leventhal, T., & Newman, S. (2010).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9), 1165-1174.
- Neugarten, B. L.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투고일자: 2024. 4. 26.

심사일자: 2024. 5. 20.

게재확정일자: 2024. 5. 28.

# Influence of Housing Characteristics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SunSook Park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concerning their life satisfaction. We used panel data from the 9th (2014), 12th (2017), and 15th (2020) of the Korea Welfare Panel (KOWEPS) with 449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or older in a mixed model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residential area per person and the better the essential, structur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hen they own them. Second, the housing cost burde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ife satisfaction. Third, the greater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Fourth, in the probability effect verification, essential facilities and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housing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were proposed.

*Keywords: Disabilities Elderly, Hous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ion Experiences, Life Satisfaction, Mixed Model.*